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센터  
www.m-teacher.co.kr

vol.21 | 2018년 6월호

## 교육 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최근 국내 항공사 고위 임원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고위직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커녕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한 처사에 많은 이들이 분노한 것. 이런 ‘갑질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기업인, 정치인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이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언론을 통해 설 새 없이 보도된다.

문제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사건을 자주 접할 경우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조기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 ‘나보다 직책이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 ‘돈을 냈으니 나는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 등 학생이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을 일찍이 바로 잡고,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아야 건강한 미래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한다.

이에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할 교육현장의 책임은 막중하지만 학교에서 양질의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빡빡한 학사일정 속에서 인성교육만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기가 힘들뿐 아니라, 애써 시간을 내더라도 인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만을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에 그치는 것이 현실.

이런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인성교육,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오랜 시간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힘써온 김병기 충북 형석중 교사로부터 인성교육 노하우를 묻고 들었다. 김병기 교사는 2004년부터 교내 바른 인성문화 확산 운동인 ‘새날문화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최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제5회 인성교육 대상에서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교육현장의 '바른 인성문화' 확산 위해 힘쓰는  
김병기 충북 형석중 교사

“인성교육?  
교사가 몸소  
학생 삶  
파고드는 것”

김병기 교사는 “인성교육은 학창 시절 뿐만 아니라 평생의 교훈이 될 수 있는 인식과 실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학교의 인성교육 문화를 사회문화로 전이시켜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와 함께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인성교육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뜯구름 잡는 소리’. 인성교육이 갖고 있는 오명 중 하나다.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간혹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특정한 상황과 맥락을 배제한 채 ‘누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한다”고만 말하면 학생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무엇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더욱이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를 본 경험도 드물기 때문에 좀처럼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것.

김 교사는 “인성교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것이 학생의 삶에 파고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학생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할 것. 둘째, 교사가 몸소 나서야 할 것. 김 교사가 교내 탈북학생을 도왔던 사례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김 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을 위해 교사-지역사회 공무원 등과 함께 모금활동을 하고, 탈북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여주기 위해 학습 동아리도 개설했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 학생을 다름 아닌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돕는 모습을 보며 선행의 의미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됐다는 것. 무작정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교육법인 것이다.

“바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긍정적 변화가 나에게, 또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혹시 학생들이 그릇된 행동을 한 경우라도 ‘그러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반대로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떤 긍정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김 교사)

### 학교에서 사회로, 오늘에서 내일로

학생들이 속한 세계는 학교뿐만이 아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학교 밖의 사회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금방 ‘바른 인성을 갖춰야 한다’는 당위성을 잊어버리게 된다. 김 교사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른 인성을 중요시하는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바른 삶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김 교사는 교내의 인성 문화 활동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했다. 먼저 매일 학생들에게 보내주던 좋은 글귀를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 이런 글귀를 시화 작품으로 만들어 일정 시간 교내에 전시한 뒤에는 지역 내 다른 학교와 공공기관에 기부했다.

교내에서 진행되는 인성 문화 활동을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활동은 진로활동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교사들이 시도해 봄직하다. 예를 들어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는 헌혈봉사를 함께 하고, 교사를 꿈꾸는 학생과는 학습 보조 봉사를 함께하는 식.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특정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따라서 그 가치관이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지요.”(김 교사)

### 가르치는 교육 아닌 ‘보여주는 교육’

인성교육의 효과가 학생들의 내면에 단단하게 뿌리내리려면 교사들의 변화도 필요하다. 김 교사는 “인성교육은 교사가 학생을 단순히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즉, 교사 자신이 먼저 바른 삶에 대해 고민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려는 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교사가 말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 역시 그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 교사가 타인 존중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에게도 늘 ‘나마스테(나는 당신을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건네고, 학생들이 힘들 때 보낸 400통이 넘는 편지에 일일이 자필로 답장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실행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교사는 학생의 거울입니다. 학생들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교사 자신부터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를 실제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교사의 변화가 선행돼야 학생들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김 교사)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